

특별기획



김제 성덕초, 항공드론과학교실 개회

김제시 성덕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5일 (사)한국항공소년단에서 주최하고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가 후원하는 '항공드론 과학교실'이 열렸다.

이날 실시한 프로그램은 팬텀4 드론 시범과 체험, 오르니터 고무동력기 및 T-50 비행기 모형 조립하여 날리는 체험, 항공관련 직업 알아보기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팬텀4 드론을 활용하여 학교전경과 학생들 모습을 담은 항공촬영도 운동장에서 시행되었다.

관내 주민인 박균성 님은 현재 (사)한국항공소년단 전북연맹 이사로 활동하고 자녀를 항공소년단에 가입시켜 그간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가운데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항공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드론 과학교실을 유치하였다. /김제=곽태 기자

정읍시, 폭염 대비 종합대책 운영

이달 2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염 주의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라 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재난도우미(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와 시청 직원에게 폭염 정보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파함은 물론 재난도우미들로 하여금 폭염 취약계층인 노약자와 독거노인 등을 방문하고 전화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시는 또 재난취약 마을주민들에게 전광판과 자동음성경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림으로써 주민들이 폭염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과 공공기관 등 225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 관리를 강화해 수시로 에어컨을 가동토록 함은 물론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비치하고 청결상태도 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 근로자와 농업인, 야외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갖도록 사업주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요노선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시로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고, 폭염 대비 행동매뉴얼 홍보용 부채와 쿨스카프(7,800개)도 제작해 경로당과 무더위쉼터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생기 공공혁신 '대상'

(정읍시장)

시민중심 경영부문... 맞춤형 행정·지역발전 정책으로 삶의 질 끌어 올려

김생기 시장이 '2016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중앙일보 포브스 코리아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공공혁신대상 시민중심 경영부문(이하 공공혁신 대상)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와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공공혁신대상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 속에서 진정한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분야 기관 및 행정자치단체를 선정,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정읍시정을 이끌어 오고 있는 김생기 시장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을 모토로 소통과 섬김, 현장행정·참여정신을 기반으로 한 시정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끝목달만한 행정혁신을 이루어냈다.

김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시민과의 맞춤형 소통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

는 맞춤형 행정과 지역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행정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렸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탁월한 리더십과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의지로 시정을 이끌어 시정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지역발전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했다.

선도적인 광역행정시스템 구축에 나서 인근 지자체인 고창, 부안과의 협업행정을 통해 상생발전을 꾀한 물론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대표적인 성과는 광역 공동화장장인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이다.

또 이들 지자체와 전국 최초로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 생활권'을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나서 3년(2013~2015) 연속 대동력지역 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연계협력사업 및 선도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와 함께 3대 국가출연 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R&D 사업 기반구축에 주력했고 이와 연계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했

다. 또 이를 토대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7월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정읍이 포함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융합전원장치와 플라즈마전원장치 등 전기변화 장치 제조와 전동차 및 의료전문기업인 (주)다윈시스 유치에 성공했다. 다윈시스는 오는 2018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전동차 생산공장 건축 설계 중에 있다. 연간 300량 전동차 생산규모로, 30여개 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을 통해 국내 최대의 전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암 전문병원과 의료전문 연구소 그리고 의료시설과 지식산업이 들어서면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의료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KTX 개통을 이끌어내면서 정읍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 수도권 시대 개막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 박차

2016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여성 역량강화·사회참여 51개 사업 정상적 추진 중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대한 점검과 부서 간 공유를 통한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화제를 끌고 있다.

이진식 김제시장의 주재로 26일 개최된 보고회에는 각 단위사업 소관 부서장 16명과 담당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급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시정전반에 걸쳐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보고내용은 성인지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성평형분석평가, 지평선축제 행사장 및 청사 내 여성친화시설 확충 상황, 시민 명예실과 장제를 통한 여성 참여비율 확대 및 각종 정부위원회 성비규정 준수 등 여성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기반 마련에 포커스를 둔 51개 사업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과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평등·안전·돌봄·건강 등 4대 핵심영역과 8대 정책과제를 근간으로, 매년 단위사업을 발굴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매년 전 부서 공직자와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과제발굴 워크숍, 현장 워크숍, 여성정책 컨서트 등을 개최해 소통과 공감의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올해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각자 맡은 바 업무의 최고 전문가로서 공지와 자부심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다할 때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은 그 결과의 산물이며, 공직자의 큰 보람으로 귀결될 것이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김제=곽태 기자

부안 드림스타트 '한뼘 크는 생태(갯벌) 체험 떠나요!' 운영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 드림스타트에서는 최근 부안군 변산면 도창리 모항갯벌체험장, 모항해나루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보호자 등이 참여 우리 지역의 갯벌생태를 직접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갯벌생태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졌다.

"한뼘 크는 생태(갯벌)체험 떠나요!" 프로그램은 가족의 정서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평소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자녀들에게 가족간의 대화 및 협동 활동시간 등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부모는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임장섭 대표 신지식농업인 선정

(부안유봉새영농조합)

채소분야 수박품목에서 인정받아

정정 해풍을 머금고 자란 부안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부안유봉새영농조합법인 임장섭 대표가 2016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됐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농림부 차관보 외 10명으로 구성된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는 '신지식농업인'으로 20명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999년부터 시상하는 '신지식농업인'은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특히 임 대표는 채소분야 수박품목에서 공로와 자질을 인정받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돼 지난 22일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부안유봉새영농조합법인의 임장섭 대표는 신지식·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농촌 변화를 주도해 우리 농업의 발전의 견인차로서 맹활약 중이다.

더욱이 기후와 소비트렌드 변화에 한 발 앞서 씨 없는 수박을 10년 전부터 국내 농가에 보급하여 여름철 고온기 수박재배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며, 국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에 대응하려는 소과종 수박을 개발 보급해 왔다.

또 고품질 수박 재배량을 지속적



으로 늘리고 있으며 상품종 수박을 보급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 대표는 해마다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새로운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부자 농업 잘사는 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 대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판매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강화시켜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단풍미인한우 수도권 공략 나서

'안양평촌점' 개장

뛰어난 맛으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정읍 단풍미인한우가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시는 2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동편프라자에서 단풍미인한우 '안양평촌점(이하 안양평촌점)' 개장식을 가졌다.

개장식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도의원 및 시의원, 단풍미인한우농조합법인(이하 단풍미인한우조합) 김준영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평촌점은 시가 한우 대도시 복합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 단풍미인한우조합에 5억원을 지원, 마련됐다. 건평 400여㎡ 규모로, 80여석 규모의 식당과 정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교월동, 맞춤형 복지팀 출범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한)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포함한 총 5명의 복지업무 경험이 많은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 11일 교월동 주민센터에 설치됐으며,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접수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복지 대상자를 발굴·상당하고, 가구별 사정에 따라 통합 지원하며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제=곽태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